

# 탈탄소 사회를 향하여

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르딕, 독일 노동조합의 협력

사업추진실 교육문화팀

## □ 보고서 개요

- (작성기관) 노르딕 노동조합(NFS), 독일 노동조합(DGB), FES\*
  - \*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: 독일 독립 정치 재단
- (발간일) 2020년 12월
- (주제) 기후정책으로 인한 노르딕 및 독일 사회 내 구조적 변화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, 정책 제언 등

## □ 탈탄소 사회를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

- 보고서에서 분석한 노동 인구는 분석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으로, 노동조합의 참여는 사회적·생태적 전환의 핵심 요소임
-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직원들을 변화에 대비시키고, 교육시킬 수 있음
  - 독일의 경우 직업훈련을 계획하였으며, 노르웨이는 ‘근로자와 기후 주간’이라는 전통을 만들어 업무 현장에서의 기후대응 실천 방안을 강조
- 에너지효율 개선, 탄소제거 신기술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
  - CCS와 같은 신기술 지원을 통해 탄소 저감은 물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, 관련 투자를 통해 공급망, 서비스 부문 등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

## □ 정책 제언

- 정책결정자는 기후정책 개발 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
  -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연계뿐 아니라, 경제, 교육, 노동 시장, 성별(性別), 부문별 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
- 노동자들은 구조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국가, 부문,

지역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대한 대비·모니터링에 관여하는 등 구조적 변화에 핵심 관계자로 참여해야 함

- 전환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을 새로운 직무와 일자리에 대비시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업무환경을 만들 수 있음
- 일자리와 고용 보장 등 사회적 보호(social protection)를 통해 구조적 변화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
- 기후중립을 위한 투자는 결국 지구, 경제, 사람에게 보상으로 돌아올 것임
  - 친환경 기술은 수출 잠재력이 있으며,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, 질 좋은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것
- 녹색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과 산업이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함
-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함
  - 부문, 지역, 노동 시장에 대한 기후정책의 영향, 사회·생태 전환의 간접적 영향, 성별에 대한 영향 등
- 노르딕 국가와 독일은 기후중립 달성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